

## 해설

컬렉션 갤러리에서는 저희 미술관 소장 작품을 매번 주제를 정해 소개해 드립니다. 이번 전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[큐레토리얼 스터디즈 12: 샘/Fountain 1917-2017]

#### Case 3: 누가 "샘"을 버렸는가 Flying Fountain(s)

올해는 마르셀 뒤샹의 작품 "샘"이 앙데팡당전 출품을 거부당한 '사건'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. 올해 컬렉션전에서는 5회에 걸쳐 이 "샘"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해독의 가능성을 전시 및 лек처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. 이번에는 그 세 번째로 저희 미술관의 전 학예과장 고모토 신지 씨의 기획으로 "샘"의 오리지널과 레플리카의 문제에 대해 살펴봅니다. 뒤샹의 영향을 받은 전위미술 운동 '플럭서스' 관련 작품을 소개하는 [플럭서스의 멀티플: 레디메이드 이후], 뒤샹에 대한 오마주적 작품을 모은 [앤서 송: 이다 쇼이치, 모리무라 야스마사, 가사하라 에미코]도 함께 감상해 주십시오.

### [이탈리아 동경]

3층 기획전 회장에서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는 '기누타니 고지 색채와 이미지의 여행'전과 관련하여 기누타니 씨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를 동경하는 일본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

### [특집 전시1: 탄생 130년 기념 하다 데루오 특집]

'이단의 일본화가'로 알려진 하다 데루오(1887~1945) 탄생 130년을 기념한 전시입니다. 하다는 히로시마현에서 태어나 교토시립 미술공예학교를 졸업한 후 다이쇼시대(1912-1926)부터 쇼와시대(1926-1989) 초기에 걸쳐 오사카, 고베, 도쿄를 방랑하면서 사회의 저변에 사는 여성들을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. 화가로서의 인생 후반기에는 다수의 불화도 제작했습니다. 여기서는 저희 미술관의 소장품에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의 소장품과 기탁품을 추가해 그 매력을 선보입니다.

### [특집 전시2: "현대의 도예 - 유럽과 일본"전(1970년)에서]

저희 미술관이 1970년에 개최한 "현대의 도예 - 유럽과 일본"전에 출품되어 전람회 종료 후에 저희 미술관이 소장하게 된 유럽의 현대 도예 작품을 전시합니다. 그 전람회는 북유럽과

서유럽의 도예계 상황을 한눈에 조망하는,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. 그 후의 일본 도예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,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을 감상해 주십시오.

### [가와이 간지로의 도예]

전번 컬렉션전에 이어 저희 미술관의 가와카쓰 컬렉션 중에서 가와이 간지로의 뛰어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

### [간사이 미술원의 화가들]

1906년에 개설되어 지금도 여전히 당시의 건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서양화 교육기관 간사이 미술원 관련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.

옥외에 전시된 조각 작품들을 로비 등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